



‘교육혁신선도지역’ 도전... 전국 경쟁 똘나

교육부 올해 첫 공모 추진... 2유형 10곳 내외 지정
제주도·교육청·도의회·제주대 공동 협력체계 구축
선정 시 최대 5년간 특별교부금 연 30억원 이내 지원

정부가 올해 처음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나선 가운데 제주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제주의 ‘교육혁신 모델’이 전국 단위의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교육혁신선도지역을 공모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핵심 주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교육 발전, 지역 인재 양성·정주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5국 3특 균형성장)와 맞물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2024-2026년)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기존 교육특구 사업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기존 교육특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추진되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고, 우수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발전특구에 이름을 올렸던 제주 역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제주대학교 등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기획해 왔다. 조만간 도교육청과 제주도가 교육부에 공동 제출할 운영계획서에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등 필수 과제에 더해

자율 과제에 대한 제주만의 구상이 담기게 된다. 앞서 도교육청이 추진을 예고한 IB 교육과정과 해양 직업계열 학과 공동 운영 등도 연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22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대도 참여해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기관별 역량과 자원을 연계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발표한다. 제주가

신청하게 되는 ‘2유형’은 인구감소 지역(1유형) 외에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시·군)와 광역시·통합특별시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유독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유형 10개 내외를 지정해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가 최종 지정되면 매년 30억원 이내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된다.

고의숙 교육감은 “지역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힘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가 22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고의숙 교육감과 송영훈 도의회의장,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양덕순 제주대 총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 관광사업 투자 확대하는 한화그룹

회천동 한화리조트 인근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계획
도 건축위 최근 원안 의결... 중산간 환경·경관 영향 관심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그룹이 도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제출한 건축계획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한화리조트 제주 인

근 제주시 회천동 산 5-8번지 일대 6만2665㎡(1만8900평) 규모의 부지에 건축면적 1137㎡(343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사업명은 숲속아카이브와 블루밍파밀리오 등 2건으로 나뉘며, 한화 측은 이 시설을 카페 등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지난 4월 관련 건축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당시 건축위원회는 부지 내 부설주차장과 진입로 등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의결했다.

한화 측은 이후 관련 계획을 보완하고 지난 9월 다시 건축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번 심의에서 원안 의결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해당 부지가 제주 중산간에 위치한 만큼 향후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환경·경관 등에 대한 우려

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화그룹은 최근 제주에서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애월포스트 PFV(주)는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6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1479㎡ 부지에 호텔·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두고 중산간 대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용암동굴 입구·숨골 새롭게 확인 제주 보전지역 넓어진다

도, 10월 주민 공람 거쳐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등급 정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용암동굴 입구, 숨골 등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도내 관리보전지역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초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등급 정기조사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의회 동의를 받아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등급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진행되는 조사로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한 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고 올해 7월 현장조사를 통해 등급 변경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도청 자유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

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분석 결과와 보전등급 변경안을 공유했다. 이번 조사 결과, 용암동굴 입구와 숨골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절대보전지역의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절대보전지역이었던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 등이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수목 벌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별 등급에 따라 차등 규제를 받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 첨단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후보지 선정 재생에너지·청정바이오 혁신 거점 조성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가 20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 재생에너지·청정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 완주 일반산업단, 강원 원주 문막 일반산업단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산업부, 국토부 등 8개 부처의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을 연계해 제조 AI전환, 그린 전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노후화되면서 청년들의 근무 기피, 인프라 노후화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및 청정자원 기반 스마트그린산업 구축,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제주 고유자원 기반 RE100혁신산업 조성, 청정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6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거점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와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를 연계한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신청했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 선정된 3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내년 1분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도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